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3.(화) 13:30 (2026. 11. 4.(수) 조간)

안전한 대불산단, 실천으로 이뤄낸다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당부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1월 3일(화)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 대불산단**을 찾아 불시 현장점검을 한 뒤, 이어서 노·사 및 시민단체를 만나 **안전한 대불산단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불산단은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고위험 작업이 많은 특성상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유사·반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 '25.1~'26.9월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명(외국인 4명 포함)

먼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확인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의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대불산단은 중량물 취급 작업(크레인 등), 화기작업(절단·용접), 고소작업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의 위험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과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노·사 및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사고를 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정탁 (044-202-8831)
		담당자	사무관	안서종 (044-202-8889)
			주무관	박근영 (044-202-8848)
	목포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최병식 (061-280-0171)
		담당자	팀 장	이유미 (061-280-0177)

붙임1 **대불산단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26. 11. 3.(화) 13:30~14:30

○ (장소) 조선해양센터 회의실(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 참석자

○ (내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등

○ (외부) 노동계·경영계,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 등

□ 논의 사항

○ 대불산단 산업재해 예방 방안 발제 및 토의

□ 세부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 단체촬영 및 인사말씀	본부장
13:35~13:45	10’	· 대불산단 산업재해 예방 방안 발제	산재예방감독과장
13:45~14:25	40’	· 산업재해 예방 실천방안 논의	참석자 전원
14:25~14:30	5’	· 마무리 말씀	본부장

붙임2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말씀** * 실제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불산단에서 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대불산단에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신호임을
모두가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짚어보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 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대불산단은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밀집해있고,
여러 협력업체, 내·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설비와 규칙을 갖추고
일하는 누구나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국적,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이 안전관리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시설·장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독과 기술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확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안전리더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시로 만나 실천의지를 다지며
안전한 대불산단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체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나간다면
대불산단에서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노동부도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라는
확고한 일념으로 대불산단이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